

## 위작설에 휘말린 《환단고기》

위서(僞書)의 사회사 — 3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환단고기》가 강단사학이 밝히지 못한 고대사의 '찬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위작설'에 시달리고 사료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책의 공개를 늦췄던 동기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아 편찬시기가 의심스러운 것이고, 두번째는 책에 나온 관직명·지명·용어 등에서 시간적 비약이 심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이 책이 신채호의 상고사 인식체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의 진위 논란은 자칫 엉뚱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강단 사학자들은 대부분 후세 위작설을, 재야 사학자들은 진본설을 주장한다. 여기에 애국사관과 식민사관이 끼어들며 오해를 낳기도 한다. 분명히 말해 둘 것은 《환단고기》가 비록 내용과 용어의 일부가 후세의 것이라 해도 아직 책 자체가 완전히 위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환단고기》는 1911년 묘향산 단군암에서 선천사람 계연수(桂延壽)가 《삼성기(三聖紀)》《단군세기(檀君世紀)》《북부여기(北夫餘紀)》《태백일사(太白山逸史)》라는 각기 다른 네종류의 책을 필사해 하나로 묶은 다음 이 기(李沂)의 감수를 받아 펴낸 것이라고 이 책의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

### 《환단고기》의 '출생명세서'

이 책의 편찬자 계연수는 누구인가. 1909년 무렵에 성립된 단학회(檀學會)의 후신인 단단학회(檀檀學會)측 자료에 따르면, 이 기 등 평안도 지방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기존의 대중교와는 별도로 단군에 관한 각종 사료를 수집한 후 단군 연구단체를 조직한 인물이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3·1운동 후 만주로 건너가 서로군정서를 주도하고, 계연수도 이들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환단고기》를 편찬했다. 그는 1920년 사망하기 전에 다음 경신년(1980)이 되거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라고 원고를 이유림이란 사람에게 넘겼다. 그리해 1979년 수습부가 영인된 후 1980년에는 일본인 카시마가 일어로 번역하면서 세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4권의 책을 묶어 편찬했다는 《환단고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삼성기》는 원래 안함로(安含老)가 지은 것과 원동중(元董仲)이 지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한다. 이 가운데 계연수

가 소장하고 있던 안함로 저작의 책을 《삼성기전(三聖記全)》 상편으로, 태천의 백관목에게 얻은 원동중이 저술한 것을 《삼성기전》 하편으로 해 《삼성기》를 구성했다. 여기서 삼성은 환인·환웅·단군을 가리킨다.

《단군세기》는 고려말 이 암이 저술한 책으로 47대 1,096년에 걸친 단군조선의 편년사가 정리돼 있다. 《북부여기》는 《단군세기》를 저술한 이 암의 현손인 이 맥(李陌)이 편찬한 것으로 해모수에서 고주몽에 이르는 북부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태백일사》는 이 기가 소장했던 것으로 우주의 생성에 관한 내용에서 환인이 다스렸다는 한국의 역사, 진한·마한·변한의 역사, 그리고 단군신앙과 관련된 경전·교리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환단고기》는 한국상고시대의 정치와 종교를 서술대상으로 해 편찬된 사서라 하겠다. 현재 전하고 있는 이 책은 1949년 이유림(1907~1986)이 오형기에게 정서시킨 것이다. 그 때문이라 할 《환단고기》는 필사본으로 짐작되는데, 원(原) 《환단고기》는 계연수가 편찬하고 이 기가 감수해 1911년 인쇄됐다. 그 인쇄본은 아직 찾을 수 없고, 이유림이 소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필사본도 역시 찾을 수 없다. 현재 나돌고 있는 것은 오형기의 정서본이 1979년 이유림에 의해 영인된 것이다.

### 위작설의 사료적 근거

《환단고기》가 우리 교과서나 강단사학에서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고대사의 '찬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위작설'에 시달리고 사료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이 책에 수록된 네 책의 저술연대는 모두 조선전기 이전으로 돼 있다. 1911년에 인쇄됐다고 하는 데도 1979년 이전에 《환단고기》에 나오는 네 책이나 이 책들을 인용하고 있는 문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은 《환단고기》에 실린 네 책이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조인성,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이도학 교수는 《환단고기》를 위서로 간주하는 논자들의 주장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이 책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그 편찬부터 약 7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고, 계연수나 이유림이 책의 공개를 늦췄던 동기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찬시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둘째, 이 책의 내용상 관직명·지명·용어 등에서 시간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가령 고구려의 교육기관인 '경당'이나 그 관직인 '육살(櫛薩)' 등이 단군조선 때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문화' '원시국가' 등을 비롯한 근대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책은 일제시기에 소개된 신채호의 상고사 인식체계와 그 용어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 작성된 위서로 밝혀진 《단기고사》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이도학, 《환단고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인성 교수는 좀더 구체적으로 《환단고기》에 대한 사료적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군세기》《북부여기》《태백일사》에는 청나라 때부터 사용된 지명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세가지의 예를 든다.

- ① 무자(戊子) 7년 영고탑(寧古塔) 서문 밖 감물산(甘勿山) 아래에 삼성사를 세우고 친히 제사를 지냈다(《단군세기》 33세 단군 감물).
- ② 계해(癸亥) 2년 제(帝)가 영고탑에 순행해 흰 노루를 얻었다(《북부여기》 하 6세 고무서).
- ③ 무자(戊子)년에 마한이 명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와 영고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태백일사》《마한세가》 하).

여기에 나오는 '영고탑'은 청나라 시조건설과 관련해 생긴 지명이다. 따라서 영고탑이라는 지명은 청나라 이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조인성, 앞의 글).

이 부분과 관련해 이도학 교수는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령 청나라의 발상지인 만주 길림성 영안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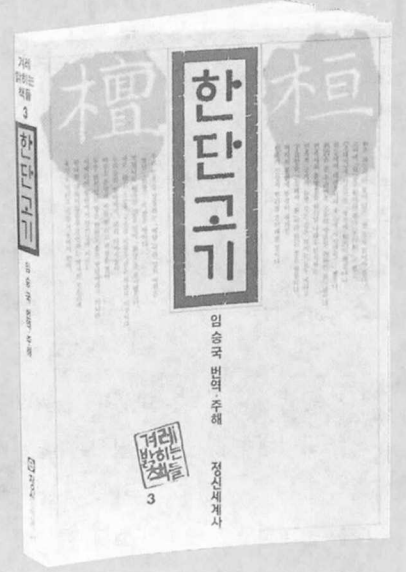
에 있는 영고탑이란 지명이 《환단고기》의 단군조선사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영고탑을 개축하고 별궁을 지었다”고 해 영고탑을 탑으로까지 오인하고 있는 구절이 보인다. 그런데 영고탑이라는 지명은 원래 청나라 시조 형제와 관련해서 생겨난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주어로 '영고'는 여섯이라는 뜻을, '탑'은 앉는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청나라 조정이 편찬한 《만주원류고》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영고탑이란 지명은 청나라 이전으로 소급되기조차 어렵다. 어쩌면 이것이 《환단고기》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 압이니 이 맥 등과는 관계없이 그보다 훨씬 후대에 《환단고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 명승지인 모란봉까지도 단군조선과 관계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B.C. 20세기 경에는 적어도 벼농사가 시행된 기록이 보이지만, 이는 현재의 고고학적인 지견(知見)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밖에 고구려의 교육기관인 '경당'이나 고구려의 관직인 '육살' 등이 단군조선 때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원시국가'를 비롯한 현대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도 《환단고기》에 대한 의문을 한층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이 같은 지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이도학, 《환단고기》).

《환단고기》의 〈서문〉에서 “나라가 형(形)이라면 역사는 혼(魂)이라, 형이 혼을 잃고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대목도 박은식이 1915년 《한국통사》의 〈서언〉에서 “대개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神)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허물어졌으나 신만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신이 존속하여 멸하지 않으면 형은 부활할 때가 있는 것이다”는 대목과 비슷해 '위작'의 근거로 지적된다.

#### 식민사관에 '오염'된 흔적도 있어

《환단고기》를 일역해 펴뜨린 일본인 카시마는 극우 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사학'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데, 그의 《환단고기》해제도 일본과 조선 고대사의 연관성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박광용, 〈대종교관련 문헌에 위작 많다〉, 《역사비평》 1990년 가을).



《환단고기》에는 지명이나 관직명에서 위작설을 입증할 만한 치명적인 오류가 자주 발견된다. 일부 학자는 이 책이 친일인사들이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호도하기 위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점에 나와 있는 《환단고기》번역본.

박교수는 《환단고기》가 “일제침략으로 나라를 잃어서 강압적인 무단통치가 시작된 직후인 1911년에 계연수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범례에서부터,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서 “세계인류가 대등하게 모여서 함께 존재함(對峙共存)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다”란 부분도 문제로 제기했다. 강도 일본에 적극 투쟁해야 할 시기에 일본민족도 포함한 세계 인류의 대등한 공존을 내세운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고려 우왕 말년까지의 대외항쟁사를 기록한 《태백일사》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왜구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일제 군국주의 '오염성'을 제기한다.

《환단고기》를 위서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초고는 빨라야 1949년 이후에 성립되었을 것이며, 그 소장자인 이유림이 그 뒤 그것을 수정·보충해 1979년에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 추정한다(이도학).

또한 편자의 성향과 관련, 민족주의 인사가 아닌 식민사관에 젖은 “친일적 인사들이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호도하기 위한 합리화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오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박광용).●